

## 절제된 N2 폐암환자의 생존을 분석

울산의대 서울중앙병원 흉부외과  
손광현, 박승일, 이진명, 이현석.

울산의대 서울중앙병원 흉부외과에서는 1990년 1월부터 1993년 9월까지 3년 9개월간 외과적 수술을 시행한 원발성 폐암환자 115례중 N2 disease 환자 27명을 대상으로 임상적 고찰을 하였다.

성별 및 연령분포 : 남자가 23명, 여자가 4명으로 남녀비는 5.8 : 1 이었으며, 연령분포는 50대가 40.7%, 60대가 33.3% 순이었고, 평균연령은 60.3세 였다.

종양의 T-status와 위치 : 폐문부 및 폐문부 주위종양은 18명 (66.7%)으로, T2가 12명, T3가 3명, 그리고 T4가 3명 있었으며, 변연부 종양은 9명 (33.3%)으로, T2가 7명 그리고 T3가 2명 이었다.

병리조직학적 분류 : 편평상피세포암이 13례(48.1%)로 가장 많았으며, 선암 11례(40.7%), 선편평상피세포암 1례 그리고 신경내분비암이 1례 였다.

수술방법 : 전폐절제술이 15례(55.6%)로 가장 많았으며 폐1엽절제술이 4례(14.8%), 폐2엽절제술이 3례(11.1%), Sleeve 절제술이 1례(3.7%) 그리고 개흉하였으나 절제가 불가능하였던 경우가 4례(14.8%)로서 절제율은 85.2% 였다.

수술후 합병증 및 술후 1개월내 사망 환자는 없었다.

수술후 전례에서 보조요법을 시행하였으며 chemotherapy + radiotherapy를 시행한 경우가 19례, chemotherapy만 시행한 경우가 5례 그리고 radiotherapy가 3례였다.

생존율 : 전체 27례중 절제술이 가능하였던 23례를 추적 관찰하여 평균생존기간 및 1,2,3년 생존율을 조직학적 분류, 종양의 T-status 및 위치, 그리고 전이 임파선 수에 따라 비교 분석코저 한다.